

이지케어텍, AI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서비스 및 ICT 부가서비스 사업목적 추가

▶ 신규 부가 수익 창출 및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통합 제공 역량 확보

<2021-02-10> 대한민국 헬스케어IT 서비스 대표기업 이지케어텍(주)(대표이사 위원량)은 9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결의 공시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 의료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과 'PHR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업' 등 9개 사업목적은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사업목적 추가는 클라우드 및 의료산업 관련 신규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의료정보 시스템 관련 부가서비스 추가 ▲고객의 인프라 및 주변기기 통합 납품 요청 대응 ▲정부정책 과제 수행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의료정보시스템 관련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하여 사업목적에 부가통신사업, 특수부가통신사업, 온오프라인 결제대행업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국내외 고객 병원에서 의료정보시스템 신규 도입 시 주변기기 납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 전자기기 컴퓨터 유통업 및 무역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지케어텍은 이미 지난해에 LG전자와 헬스케어 IT솔루션 발굴 및 사업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양질의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 의료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PHR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여 데이터3법 및 디지털뉴딜 등 정부 정책과제 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미 회사는 헬스케어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데이터법 정책의 핵심사업인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주관기관 및 디지털뉴딜 우수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에도 연구과제에 적극 협력하고 결과물을 통해 의료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해 K-의료의 위상도 높이고자 한다. 또 현재 글로벌 최고 수준의 진단보조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을 보다 진화된 형태의 AI 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지케어텍 경영기획실 공영석 상무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당사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전, 모바일 알림서비스, VAN 등 부가서비스 확장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며 "금번 사업목적 추가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역량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는 사업목적 추가에 대해 "헬스케어IT 선도 기업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으로 HIS를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병원의 업무효율 및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부 과제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역량과 'K-의료'의 우수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